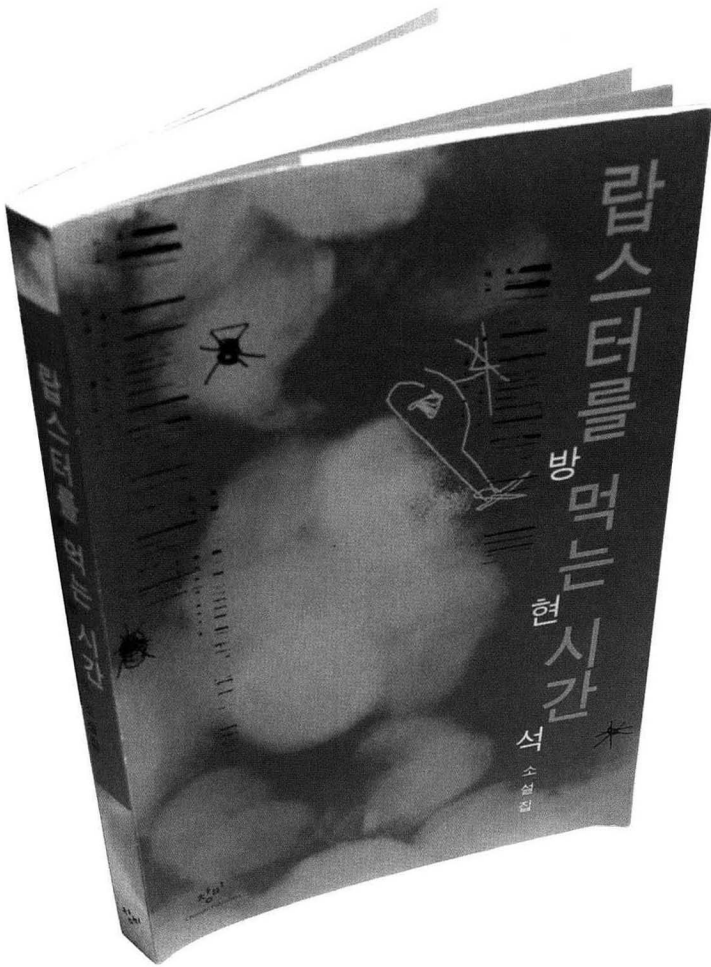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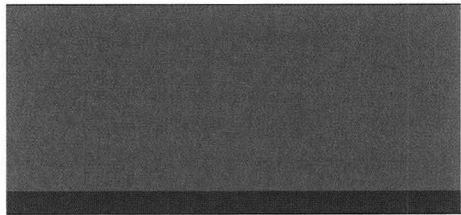


# 레지투이가 전하는 말



《랩스터를 먹는 시간》방현석 지음 | 창비 | 332쪽 | 값 8,500원



좋은 소설을 만나면 일단은 감동하고, 그 다음은 부럽고 화가 나고, 그런 다음에는 전화를 걸게 된다.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모두 다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구의 무슨 소설을 읽었는데 정말 좋더라는 식으로 모처럼 만난 좋은 소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방현석의 소설집 《랩스터를 먹는 시간》에 대해서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틈도 없었다. 왜? 벌써 모두들 알고 있었으니까. 이 소설집에 실려 있는 네 편의 소설이 모두 다 뛰어난 소설이라는 사실을.

방현석의 소설집 《랩스터를 먹는 시간》에는 〈존재의 형식〉 〈랩스터를 먹는 시간〉을 비롯해 네 편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 작가 방현석은 이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 〈존재의 형식〉으로 오영수문학상과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했다.

내가 방현석의 중편소설, 〈존재의 형식〉을 처음 읽은 것은 오영수문학상 시상식장에서였다. 작가 방현석이 전화를 걸어 울산에 고래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기에 정말 그런 줄로만 알고 따라나섰더니, 사실은 오영수문학상 시상식에 가는 길이었던 것이다. 시상식장 안으로 들어가서 주최측이 나눠주는 전단지지를 보고 나서야 나는 작가 방현석이 〈존재의 형식〉이라는 소설로 오영수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나는 전단지를 가득 메우고 있는 방현석의 소설 〈존재의 형식〉을 허겁지겁 읽기 시작했다. 내가 미처 소설을 다 읽기도 전에 작가 방현석이 호명되었고 그의 수상소감이 시작되었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오영수문학상은 그가 작가가 되어 처음 타는 상이었다.

오랜 세월, 엄살떨지 않고,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 거기, 무대 위에 서서 터

저 나오려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의 붉어진 눈시울을 바라보며 나는 묻고 싶었다. “선배! 어떻게,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버텨왔나요?” 내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의 소설 〈존재의 형식〉에 모두 들어 있었다.

방현석의 중편, 〈존재의 형식〉은 베트남을 무대로 하고 있다. 베트남에 거거하고 있는 ‘재우’는 영화사의 후배와 함께 다큐멘터리를 베트남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작업을 도와주는 베트남 사람이 바로 ‘레지투이’이다. 이 소설은 ‘레지투이’라는 한 인물의 삶에 관한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레지투이’란 어떤 사람인가? ‘레지투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작가 방현석이 이 소설에서 그려낸 베트남은 어떤 나라인가?

“구치는 사이공 시내에서 한 시간 반 거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다. 해방전선은 그곳을 중심으로 총연장 250km의 땅굴을 파고, 사이공 시내를 드나들며 미국과 싸웠다. 3층으로 거미줄처럼 뚫린 구치의 터널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세계 최강의 미국을 베트남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윈 달리’를 외치며 달려드는 관광지의 아이들과 십불의 팁에 손목을 내맡기는 술집 아가씨들을 보고 베트남을 알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구치에 가면, 가서 단돈 일원도 받지 않고 오로지 호미와 망태기만으로 24년에 걸쳐 파놓은 250km의 땅굴을 보면 전혀 다른 베트남이 있다는 사실을 소스라치게 깨닫게 된다.” (본문 5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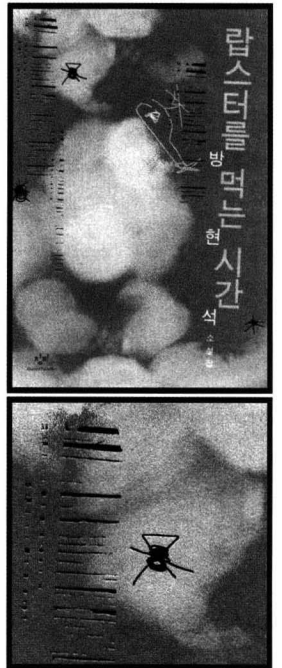
〈존재의 형식〉의 주인공 ‘레지투이’는 바로

구치 터널의 나라, 베트남의 전사이자 영화감독이고, ‘반레’라는 필명으로 시를 쓰는 시인이다. 그러나 ‘레지투이’는 자신의 무용담을 떠벌리는 사나이가 아니다. ‘재우’는 서울에서 온 감독의 말을 통해 비로소 ‘레지투이’에 대해 알게 된다.

“그는 죽어간 친구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친해졌을 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 앞에 걸어가던 친구가 지뢰를 밟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지, 함께 싸웠던 그들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 수가 있겠어” 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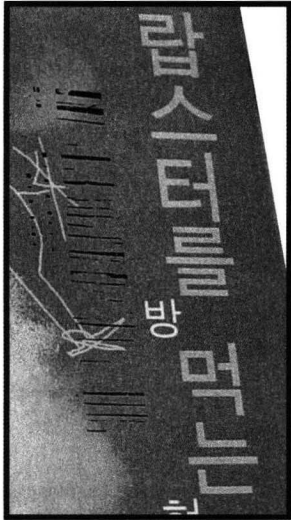
“레지투이가 전선에서 만난 친구 중에서 시인을 꿈꾸던 이가 있었다. 전쟁터에서도 그 친구는 틈만 나면 시집을 읽고, 시를 썼다. 그러나 그 친구는 수많은 동료들이 그랬듯이 전선에서 열아홉 살의 나이로 죽었다.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시인이 되지 못한 채 죽은 그 친구의 이름이 반레였다. 197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레지투이는 전선에서 싸웠고, 최후의 사이공 함락작전에 참여했다. 전쟁이 끝난 이듬해 그는 군복을 벗었고, 자신의 첫 시를 ‘반레’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지금까지 그의 모든 글은 ‘반레’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본문 64쪽)

이제는 아득한 과거가 되어버린 그 어느 날, 함께 공장으로 갔던 ‘재우’와 ‘문태’와 ‘창은’, 그러나 셋 중에서 끝까지 공장에 남은 것은 ‘창은’ 뿐이다. 청년운동에서 이름을 얻은 ‘문태’는 변호사가 되었고, ‘재우’는 베트남에 와 있고, ‘창은’은 ‘이주노동자의 집’의 소장이 되어 피부가 까무잡잡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지금도 명동성당의 허름한 천막 속



방현석의 소설집 《랍스터를 먹는 시간》에는 〈존재의 형식〉 〈랍스터를 먹는 시간〉을 비롯해 네 편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 작가 방현석은 이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소설 〈존재의 형식〉으로 오영수문학상과 황순원문학상을 받았다.





이 글을 쓴 이명랑은  
1997년 문학무크지  
<새로운>에  
시 <에피소프의 꽃> 외  
2편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꽃을 던지고 싶다》,  
연작소설집  
《삼오식당》을 냈으며,  
2002년 문예진흥원의  
'내일을 여는 젊은 문학인  
창작지원금' 을 수혜했다.  
현재 창작활동과 함께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서  
문예교사활동을  
하고 있다.

에서 찬바람을 견디고 있다.

변호사가 되어 베트남에 온 '문태' 가  
술이 취한 채 '레지투이' 에게 묻는다.

“목숨을 걸고 만들려고 했던 것을 당신은 이  
루었다고 생각해요? 삼백 명의 당신 부대원  
들 중에서 이백구십오 명이 목숨을 버려가며  
이루려고 했던 나라가 지금의 바로 이 베트남  
인가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  
요. 굶주리지 않고, 외국의 군대가 베트남의  
사람과 대지를 유린하지 않는 세상을 바랐을  
뿐이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싸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을 끝냈을 뿐  
이지요. 다음 세대에게는 또 다음 세대가 해  
결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가 다  
해버리면 다음 세대는 뭘 하고 살겠어요? 어  
떤 세대도 다음 세대가 할 일을 미리 할 수는  
없지 않을까……나의 삶을 지탱해 온 것은 거  
창한 이념이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 형제들을  
기르면서 가르쳐준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내  
가 군대에 지원해서 전쟁터로 떠나던 날 어머  
니는 말했어요. ‘아들아, 그 모든 사람들로부  
터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다.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욕할 수는 있다. 그것은 어쩔 수 없  
다. 그러나 누구한테서도 경멸받을 삶을 살아  
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그 말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남아 있지요.”

작가의 말에서 작가 방현식은 이렇게 말한다.  
남에게 너무 미안하지 않고, 자신에게 너무  
억울하지 않게, 살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인생을 송두리째 던졌던 그 무엇, 그 무엇이  
누구에게는 이념이었고, 누구에게는 사랑이

었고, 누구에게는 한 시대의 아픔이었을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그 무엇이 사  
라져버렸을 때…

'레지투이' 에게로 가 그의 눈을 들여다  
보자. 비애를 넘어 짙은 슬픔이 뿜어져 나오  
는 눈빛으로 '레지투이' 는 당신을 바라보리  
라. 그리고 슬픔과 달관이 뒤엉켜 평화로움과  
적멸감을 불러일으키는 얼굴로 '레지투이' 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리라. 당신과 내가,  
우리가 잃어버린 그 무엇의 이야기를. **후기**